

국립공원개발제한 해제 요구

진도군 의회, 해상국립공원 기준 완화 촉구 실효성 있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 주장해



진도군의회가 지난 29일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도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25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진도군 도서지역 대부분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공원내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다”며 “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시 시대 흐름에 맞는 현실성 있는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고통 해소를 위해 ▲국립공원 구역 해제검토 대상이 되는 공원을 지구의 기준 기초 수를 20호에서 5호 이상으로 ▲자유로운 바다낚시·어로행위 가능 ▲대규모로 개발된 항·포구 지역기준을 소규모 항·포구 지역으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진도군의회는 “▲해제 가능한 농어촌 도로 기준을 면도에서 리도, 농도까지 확대 조정 ▲농경지로 연결된 필지 전체 면적 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에 반영된 지역을 공원에서 해제 가능토록 기준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장흥군, 어촌 소득 향상 위해 해삼 종묘 1만5천미 방류

부가가치 높은 해삼 방류해 어촌 소득 향상 불법어구 사용 금지 어업인 결의 시행

장흥군은 지난 21일 오전 대덕읍 내저항에서 해삼 종묘 1만5천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연안해역의 어족 자원이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전락품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해삼을 방류해 어촌 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

다. 바다에 뿌려진 해삼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시험연구 생산한 해삼종자 물량을 확보한 것이다. 방류행사는 어촌계주인과 어촌계장단, 장흥군 등 25여명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업인들은 방류행사 이후 해삼종자가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어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장흥군에서는 2007년 5월부터 방류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에는 감성돔, 전복, 점농어 등 경제성 있는 어종을 방류하여 안정적인 어족자원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암군 신북면 농어민공익수당 선정심의회 개최



영암군 신북면에서는 지난 21일 2019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면사무소 면장실에서 심의위원장인 천민성 면장 등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농가 1,026명

대신 심의회를 통하여 적격대상으로 심의의결 했다.

로 심의 의결 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농업인, 관내 주소전입 및 농업경영체 등록 1년 미만, 공공기관 임직원 동일세대, 농업외의 소득이 370만 원 이상인 자, 농가주 사망으로 인한 권리 상실 등을 확인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418명 대해서는 부적격으로 심의의결 하였으며, 또한, 11월22일부터 11월26일까지 본인 열람기간을 운영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좋은이웃 밝은 동네’ 공로상

장성군은 지난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에서 열린 ‘2019 좋은이웃 밝은동네 시상식’에서 서삼면 주민 임춘임 씨가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춘임 씨는 공로상과 함께 시상금 100만 원을 수여받았다.

‘좋은이웃 밝은동네’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광주방송문화재단(KBC)이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올해 16회째를 맞았다.

공로상 수상자 임춘임 씨는 장성문인협회 회장, 장성군 문화해설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6년 장성 서삼면에 이주한 후 난방시설이 취약한 세포마을 주민 20여 명에게 매년 겨울 옷과 털신 등을 선물해왔다. 또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조성에 기여해 공로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성=박종영 기자

무안군,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공개

무안군은 20일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55명의 명단을 20일 무안군 홈페이지와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 규모는 20억 원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자진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법인 체납자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취득세 등 1억 3,17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제조

업체 K법인이고,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무안군 삼합읍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방소득세 등 8,887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P씨이다.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체납했어도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절차의 미완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암군 수도사업자 평가 최우수기관

영암군이 환경부에서 실시한 2019년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증서와 함께 포상금 3,000만 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수장 시설관리와 수질관리 등 4개분야 17개 항목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시·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된 평가단의 현지 확인평가와 지자체의 개선 노력, 정액순응도 등을 반영하여 최종 평가했다.

영암군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민선 7기에 들어서고 직원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를 공급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이번 환경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장흥군 회진면, 마을행복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장흥군 회진면 선학동 마을에서는 21일 장흥군 마을행복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일 저녁 구슬땀을 흘리며 농악 연습을 하는 등 단원들 모두 가 열의를 보였다.

마을행복 공동체 지원 사업은 주민들이 5인 이상 공동체를 구성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나 현안 문제를 발굴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 프

로그래밍이나 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지원하는 상향식 마을 사업이다.

이에 회진면 선학동 마을에서는 15명의 농악단원을 구성하여 평소 주 2-3회씩 모여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하는 등 평소 갖고 있던 실력을 마을 행사 시 뽐내기도 한다.

아울러 선학동 마을은 2019 전라남도 마을이야기 박람회에서 마을이야기 자랑대회에서 은상, 2017 전남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마을경관 환경분야에서 최우수상했다.

또한, 전라남도 KBC 광주방송국 주관, 좋은이웃 밝은 동네대상 등 각종 콘테스트에 참여하여 수상한 바 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